

# "유식·화엄을 동아시아 사상으로"

### "7~8세기 한·중·일 보편담론이었다" 고영섭씨 '… 불학스펙트럼' 서 주장



"법부의 고풍스런 현실을 극복해 주는 길잡이로서 식(識)과 심(心)의 스펙트럼이 7~8세기 동아시아 사상의 중심에서 있었던 것처럼, 불교사상은 이 시대 보편적 담론(談論)으로써 역사의 정면에서 다시 등장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소통구조"를 주제로 29일 열린 동국대 대학원 춘계 학술제 학술발표회에서 고영섭씨(동국대 불교학부 강사)는 "7~8세기 동아시아 불학(佛學)의 스펙트럼-인식(識)과 마음(心) 패러다임의 긴장과 타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씨는 "의식과 마음의 패러다임으로 표현되는 유식과 화엄은 대립(反)의 '긴장'을 넘어 역동성 부여를 통해 깨달음과 지혜라는 '타협'으로 완화, 7~8세기 동아시아 사상의 중심을 형성했다"며 "교학적 언어에 치우쳐 있는 오늘날의 불교사상도 실천적 모순을 되찾고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의 7~8세기는 유식과 화엄의 인식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다수의 사상가들이 출현, 불교의 문예부흥을 꽃피웠던 시기.

화려한 수사와 난해한 개념을 동원하는 이 시기의 두 사유는 현장(玄)·원효(元曉)·지엄(智嚴) 등으로 대 표되는 유식, 지엄(中)-의상(義相)-심상(心相) 등으로 대표되는 화엄, 유식과 화엄을 동시에 이루는 원효와 법장, 선의 혜능(中)-무상(無相) 등으로 자리매김된다.

고씨는 "이 시기 담론의 중심이 유식과 화엄이었음은 <기신론>과 <화엄경>의 구절을 차용하여 명막과 무덤이 들어 아니며 삼계는 유심(有心)·만법은 유식(有識)·萬

法(緣起)임을 깨달음으로써 인간의 보편성(一心)을 발견한 원효의 '오도송'에 압축돼 있다"며 <성유식론> <화엄경> <대승기신론> 각각에 나타난 담론을 제시했다.

<성유식론>의 담론은 유식수행은 전식득지(轉識得智), 즉 번뇌가 있는 의식(인식)을 돌이켜 번뇌가 없는 지혜(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라고 밝히고 있다. 또 <화엄경>의 담론에 따르면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이라 실한다.

특히 원효와 법장이 주목하였던 <대승기신론>의 담론은 <성유식론>과 <화엄경>의 논의를 포괄하면서 이 시기 주요 담론의 전반을 형성했다. <대승기신론>의 담론에 따르면 일심의 두 측면인 심전면(理·覺·性起)과 심생면(事·不

Exporter of Beautiful Nepalese Tibetan and Sikkim Art

Costa: Anne Isenert  
By Email: 1-800-255-0928  
Tel: (602) 729-0998  
Fax: (602) 921-4350  
www.kyohaku.com

Thangka Jewelry Statues Clothing

www.kyohaku.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문화·예술

‘인코어’ 등 7백여 사이트 가동  
각국 불상·조각 등 비교 감상

네터폰이 널리 사용하는 검색 엔진 인포-식(infoseek.com)으로 색인 가능한 불교문화·예술 사이트는 총 7백여개. 컴퓨터와 모뎀, 인터넷 주소만 숙지하고 있으면 다양한 불교문화·예술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

▲인코어(INCORE) : http://www.incore.com/india/ 사이트는 세간에서 인도 불교문화·예술의 진수로 꼽는 산치(Sanchi), 보드가야(Bodhi-gaya) 등의 유적지에 산재한 불교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종에서 경전·불교설화로부터 주제를 얻어 조각한 각가지 부조물들로 이루어진 산치대탑을 비롯해 인도 보팔(Bhopal) 지방의 빌사 언덕에 흩어져 있는 유적 소개가 백미. 이 사이트에서는 석가모니가 니렌신하에게 보인 기적, 사위성의 신변(神變), 사문 출유, 코끼리왕·사민의 보리수 예배, 삼도보계(三寶齋階) 등의 조각품을 선명한 그래픽으로 감상할 수 있다.

▲에베레스트 전설-예술과 수공예(Everest Legendary Art and Handicraft) : http://www.world-products.com/everest-legendary/ 사이트에서는 네팔·티베트 등 히말라야 지역의 탕카 불상 등 40여종의 예술품을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 전시된 탕카는 주로 부처님 생애, 점성술, 티베트 불교 교리 등을 주제로 제작된 이미지로, 보생불, 석가모니불 등이 있다. 또 카트만두 분지에서 볼 수 있는 금강산타, 승락존 등의 네 팔발상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티베트인들이 사용하는 기도깃발의 다양한 모습도

### "일제하 불교개혁론 시대적 산물" 김광식씨 '근대불교개혁론...' 서 주장



근대 불교개혁론은 한국 불교 발전을 도모하는 자주적 개혁론이기 보다는 일제치하 보수 교단에 대한 '촉구'라는 한계를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는 '근대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개혁사상'을 주제로 29~30일 대진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성영) 춘계학술대회에서 '근대 불교개혁론의 배경과 성격'을 통해 근대 불교계의 동향을 토대로 "불교개혁론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라는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만해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을 "당시 불교계의 안일한 보수 상황을 개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유신을 통해 불교계를 발전시키려는 입장이었다"고 분석하며 "그러나 제국주의의 문명론 및 종교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는 어려우며, 자기 정체성 수호 및 민족 불교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상으로와 박헌영의 불교개혁론과 관련 김씨는 "국권상실이 역사적으로 불교의 중흥 및 발전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개혁론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영재, 백용성 스님의 개혁론은 3·1 운동 직후 현실인식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영재의 '불교혁신론'은 일제 식민지의 모순을 극복하고 개혁의 추진을 교단개혁 및 불교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백용성 스님은 '전통불교 수호'라는 원칙하에 새로운 혁신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들의 개혁론은 모두 10년간의 일제 불교정책의 폐해를 이해하는 토대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 학술단신 8일 신라문화학회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8일 오전 10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제17회 신라문화학술회의를 갖는다.

'신라교본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신라의 마구(馬具) [김두철·동국대 박물관] △석적목관본 소말의 기(器) [박보현·대전보건전문대] 등이 발표된다.

'백제논총' 6집 발간  
백제문화개발연구원(원장 김보현)은 최근 <백제논총> 제6집을 발간했다.

'백제의 건국과 한성시대'를 주제로 열렸던 제2회 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백제의 국신사업에 제안하고 있으나 "이들의 개혁론은 모두 10년간의 일제 불교정책의 폐해를 이해하는 토대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 "조선시대 승려도엔 억불 사회상" 최순택교수 '조선 승려도 연구' 발표



수목담체로 그려진 승려도(僧侶圖) 연구를 통해 "한국의 승려도에는 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승려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정서가 반영, 다양하게 표출됐다"고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30일 전국대에서 열린 98년도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최순택교수(원광대 교수)는 "조선시대 승려도 연구"를 통해 "중국의 승려도는 종류를 즐기는 스님들을 즐겨 그린 반면 한국 승려도의 특징은 성(聖)과 속(俗)의 양면성을 표현하는데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시대별로 나타난 승려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수목 승려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선전기 연담(蓮潭) 김명국(1600~1662)의 '부기도(佛驛圖)'는 바둑을 두다가 삼계를 다루는 스님들의 부정적인 면모를 표현, 김명국이 스님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가 그

대로 반영돼 있다. 또 조영석(1686~1761)의 그림에 표현된 스님의 이미지는 바둑 여인 스님의 얼굴이나 유난히 뛰어난 관대해 등 탈속(脫俗)된 분위기의 스님상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사고가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 김홍도(1745~1806)의 '노승암봉도' '영물승승도' 신유복(1758~?)의 '니승영가(尼僧迎歌)' 등에서 같이 조선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난 승려도는 한국적 정취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

최교수는 "이러한 양상은 5백년 간 지속된 조선왕조의 승유(僧儒) 학에 따른 시대적 환경이 화가들의 사고와 작품의 주제성 등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조선이후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그려진 승려도에는 전시대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우수 심도를 표현, 김명국이 스님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가 그

“달라이 라마는 종교자유 보장하라”  
도지슈겐 추종 승려들 미서 시위

“달라이 라마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라”. 5월6일 1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맨해튼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종교 지도자로서의 예우가 아닌 티베트 승려 시위대를 만나야만 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날 130여명의 티베트 승려들은 달라이 라마에게 티베트 불교 승려 도지슈겐(Dorje Shugden)의 추

종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의 시위를 전개했다는 것.

도지슈겐은 350년전 금강계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거부하고 탄트라 요가수행을 강조한 티베트승려. 최근 티베트 불교계에서 도지슈겐의 수행을 따르는 승려들이 늘어나고 도지슈겐을 부처님과 동일시하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승려들이 도지슈

겐의 수행법을 따르는 것을 금지했다.

뉴욕 티베트하우스 소장 로버트 쾨번(콜롬비아대 교수)은 “도지슈겐의 교리와 수행은 티베트 불교의 다양한 종파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며 “달라이 라마는 도지슈겐의 추종자들이 배타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충돌을 우려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종자들은 “국제사회 속에서 티베트의 입지를 약화해 수백만의 도지슈겐 수행자들의 정신적 삶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미 유럽, 인도, 미국 등에서 1천5백여명에게 “금지령 철회 요구 성명서”에 서명을 받았다.

Paramita Books  
TEL (02)3443-4307  
FAX (02)3443-4308

## 歷代宗正法語集

#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

2천만 불교인 뿐만 아니라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한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을 한데 모은 역사, 현 종정인 원하 스님을 비롯하여 성현, 청담, 효봉, 동산, 서옹, 고암 스님 등 역대 종정 범어집은 현대 한국 불교사에 있어 처음 보이는 견성체험(見性體驗)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 종정 스님의 법어(法語)는 한국 선종의 독특한 오도(悟道)의 육성(肉性)이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역대 종정 스님들의 어록 앞에서 어떨 때는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자성(自性)이 붕괴되는 충격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실존적 자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마음 밖에 부처가 존재치 않으니  
성철—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청담—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효봉—부처와 중생의 모양이 다르지 않으니  
동산—부처 없는 곳을 향해 간다  
서옹—선(禪)이란 참 나를 찾는 길  
고암—부처님은 광명이요, 불법의 진리

●김정후(불교신문 사장) 편저/496면 값 15,000원 ●법보사용으로 주문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사회의 결승( 결승) 정유 스님의 불교신문 인기칼럼 모음집  
천수천안(千手天眼)  
●김정후(불교신문 사장) 편저/200면/값 6,000원

뒤살이나는 붓대의 가르침  
석가의 본심  
석가(釋迦)의 출가(出家)와 목가(牧歌)의 과정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해석한 최광성(崔光成)의 석가(釋迦)의 본심(本心)이다. 석가(釋迦)의 출가(出家)와 목가(牧歌)의 과정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해석한 최광성(崔光成)의 석가(釋迦)의 본심(本心)이다.

●오카와 류조 지음/김영숙 옮김/값 10,000원

불교TV채널의 프로그램 드디어 출간!  
밀교강좌  
한국불교와 밀교(密敎)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밀교 안내서 밀교의 본질과 수행의 방법, 밀교의 육자신(六字真言)의 의미와 성취(成취)에 대한 밀교의 진리 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불교 TV에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실감나게 엮었다.

●대한불교진흥원 지음/값 12,000원

절망 뒤에도 희망은 있다  
역학의 대가 로 알리진 백운학 운영간담 40년 상담 에세이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인생살이에 얽힌 사례를 엮은 책

●백운학 지음/266면/값 7,000원

너의 운명 얼굴에 있다  
미의천(美衣天) 선생의 얼굴엔 관음상(觀音相) 제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미의천 지음/400면/값 15,000원